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5. 3.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 기간	1
3. 조사실시 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5
7. 지역별 경기전망	6
8.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수준	6
9.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8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5년 1/4분기(1, 2, 3월) - 실적기간
- 2025년 2/4분기(4, 5, 6월)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5년 2월 21일 ~ 2025년 3월 7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거 121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자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8개 업종), 매출 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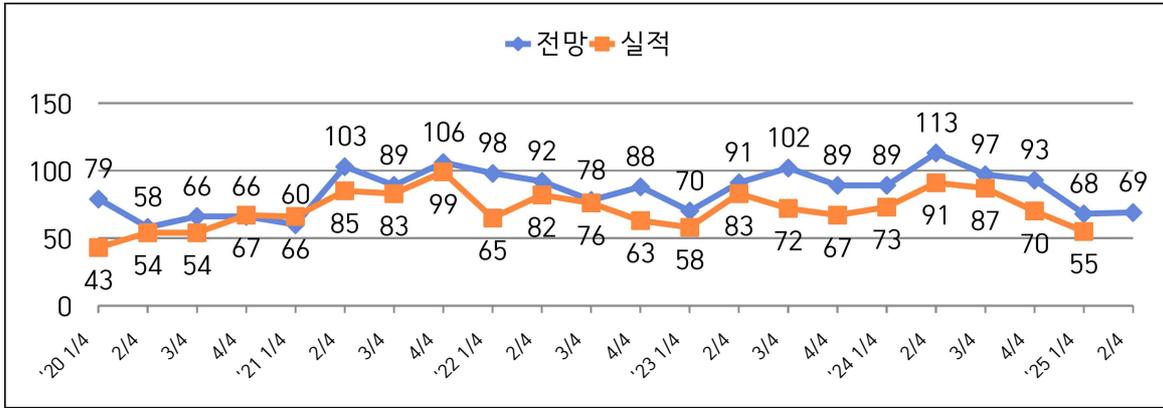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2025년 2/4분기 제조업체 BSI '69'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기 침체 예상**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2/4분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BSI(Business Survey Index)가 '69'로 집계됨.
-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집계된 것은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른바 시계제로의 상황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여파로 매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 영업이익 감소, 자금사정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 기업들의 73.7%가 올해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함.
-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속한 정국안정과 더불어 정책당국은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편성 등의 노력과 함께 기업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실적치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49.6%(60개사)의 기업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악화될 것’ 이라고 응답하여 2/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함.
- 기업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5년 1/4분기 전망	2025년 2/4분기 전망
호 전	15.5%(18개사)	19.0%(23개사)
비 슷	37.6%(44개사)	31.4%(38개사)
악 화	47.0%(55개사)	49.6%(60개사)
계	100.0%(117개사)	100.0%(121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72), 영업이익(68), 설비투자(71), 자금사정(65) 모든 항목의 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 을 밑돌며 2/4분기 전망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 기업들은 국내 정치 불안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2분기에도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2/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72 (50)	68 (43)	71 (69)	65 (48)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모든 업종의 경기 전망(BSI)이 기준치(100)을 하회하며,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2/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바이오농식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60 (60)	40 (70)	79 (50)	67 (36)	78 (50)	80 (17)	80 (67)	57 (71)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 자동차부품(80) 업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여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금속기계(78) 업종은 장기화된 건설업 경기 침체의 여파,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섬유 의복(40) 업종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바이오농식품 업종(60)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원재료 조달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5. 규모별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은 대·중견기업(78)과 중소기업(67) 모두 기준치(100)을 크게 하회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2/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78 (78)	67 (48)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도내 수출기업(79)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원가 절감, 환율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내수기업(67)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지속,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장기 내수 침체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2/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79 (88)	67 (46)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 전망은 전주(81), 익산(47), 군산(50), 전북서남(75) 지역 모두 기준치(100)을 밑돌아 지역 전반의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군산(50)지역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로 인한 자동차부품 업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편, 익산(47)지역은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와 섬유 및 바이오농식품 업종의 경쟁심화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2/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BSI	81 (55)	47 (53)	50 (45)	75 (65)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8. 2024년 대비 올해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수준

- 전북 지역 기업들의 2025년 매출액 목표 수준 설정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기업의 39.8%는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 중 25.4%는 소폭 하향, 14.4%는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기업은 26.3%로 조사됨. 이 중 22.9%는 소폭 상향, 3.4%는 크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33.9%의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목표 수준 】

구 분	크게 하향	소폭 하향 (10% 이내)	지난해 수준	소폭 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총 계
비율(%)	14.4	25.4	33.9	22.9	3.4	100.0

- 전북 지역 기업들의 2025년 투자실적 목표 설정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기업의 39.3%는 투자실적 목표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 중 24.1%는 소폭 하향, 15.2%는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투자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한 기업은 25.9%로, 이 중 17.9%는 소폭 상향, 8.0%는 크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34.8%의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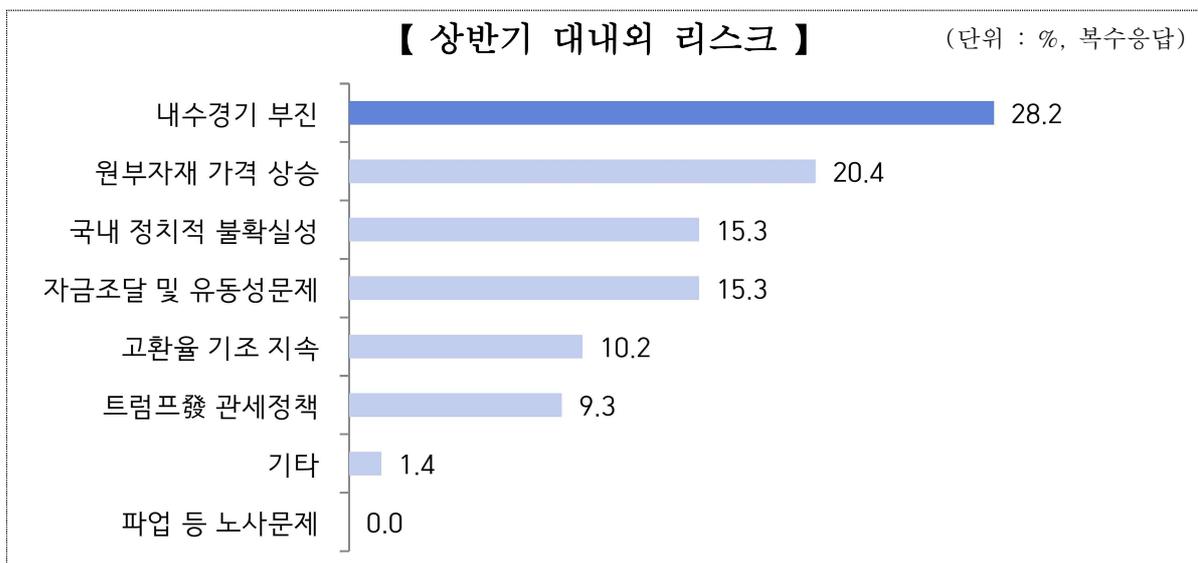
【 지난해 대비 올해 투자실적 목표 수준 】

구 분	크게 하향	소폭 하향 (10% 이내)	지난해 수준	소폭 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총 계
비율(%)	15.2	24.1	34.8	17.9	8.0	100.0

- 2025년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기업의 73.7%는 전년대비 매출액 목표 설정을 하향 조정하거나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기업의 74.1%는 전년대비 투자 실적 목표 설정을 하향 조정하거나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9.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 기업들은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경기 부진(2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20.4%)’,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15.3%)’, ‘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15.3%)’를 리스크로 지목한 기업도 적지 않았으며, ‘고환율 기조 지속(10.2%)’, ‘트럼프發 관세정책(9.3%)’, ‘기타(1.4%)’ 순으로 응답했다.
- 기업들은 소비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내수 경기 부진을 가장 큰 리스크로 예상했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소비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억제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 등의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는 업종별로 다소 상이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경기 부진’ 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이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업종별 전년 대비 올해 투자실적 목표 수준 】

(단위 : %)

구 분	내수경기 부진	원부자재 가격 상승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
바이오농식품	28.6	25.0	16.1	16.1
섬유의복	30.0	20.0	20.0	10.0
화학	26.5	29.4	11.8	2.9
비금속	33.3	14.3	14.3	14.3
금속기계	33.3	15.2	6.1	24.2
전기전자	10.0	-	50.0	30.0
자동차부품	28.6	25.0	14.3	17.9
기타	21.4	21.4	21.4	14.3

구 분	고환율 기조 지속	트럼프發 관세정책	폐업 등 노사문제	기타
바이오농식품	10.7	3.6	-	-
섬유의복	5.0	15.0	-	-
화학	14.7	11.8	-	2.9
비금속	9.5	14.3	-	-
금속기계	9.1	9.1	-	3.0
전기전자	10.0	-	-	-
자동차부품	3.6	7.1	-	3.6
기타	14.3	7.1	-	-